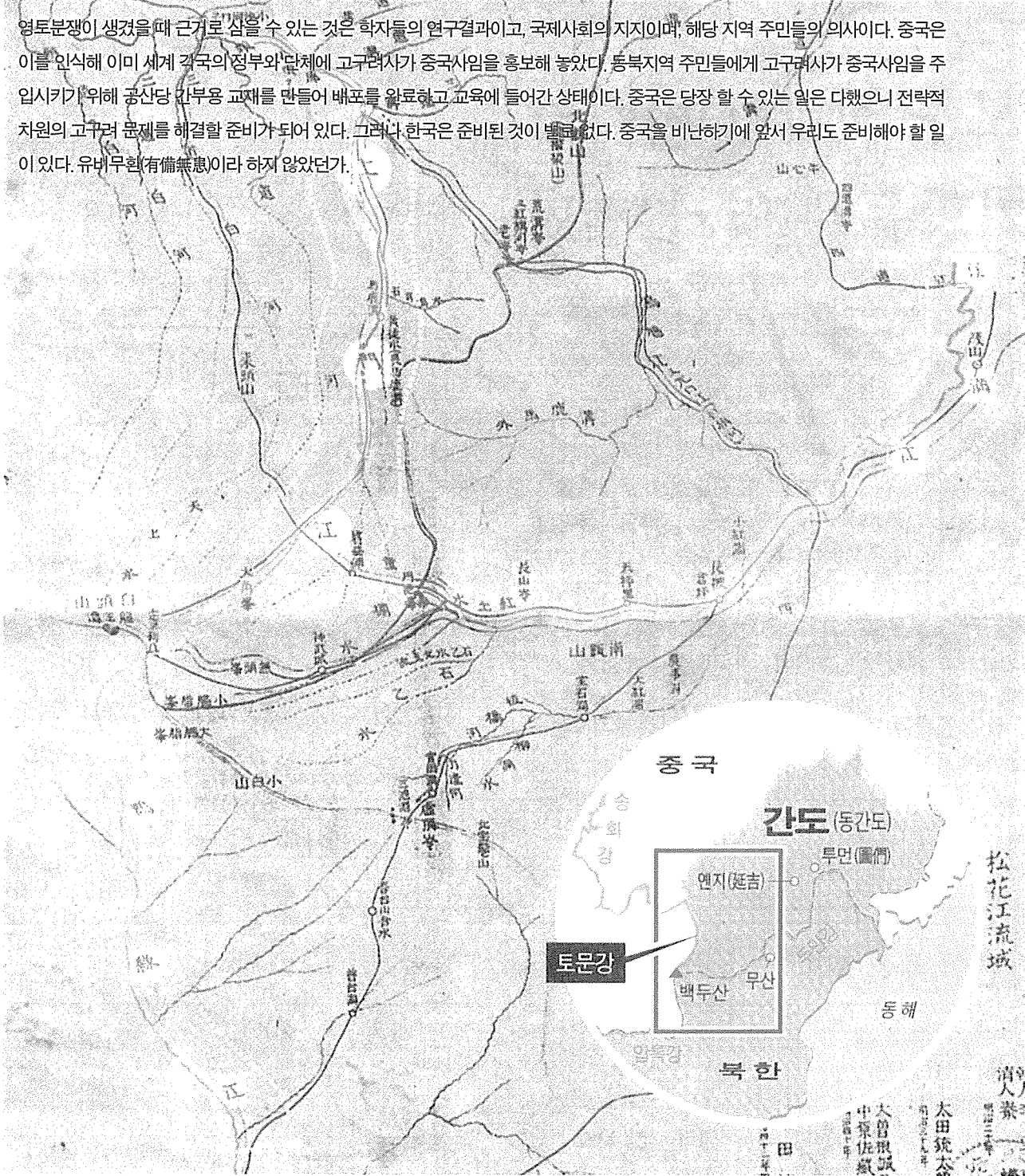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 어떻게 볼 것인가?

근래 들어 부쩍 많은 매체를 통해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왜곡 그 진실은 무엇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요약정리하였다.

영토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이고, 국제사회의 지지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이다. 중국은 이를 인식해 이미 세계 각국의 정부와 단체에 고구려사가 중국사임을 홍보해 놓았다. 동북지역 주민들에게 고구려사가 중국사임을 주입시키기 위해 공산당 간부용 교재를 만들어 배포를 완료하고 교육에 들어간 상태이다. 중국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으니 전략적 차원의 고구려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준비된 것이 별로 없다. 중국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도 준비해야 할 일 이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하지 않았던가.



중국은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역사왜곡 정책을 범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귀속되면 통일 한국은 고구려 영토 수복을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120조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동북재조(東北再造)라 일컬어지는 동북지역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국. 중국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고구려사를 빼앗으려고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종전과 달라진 한반도 정세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탈북자의 증가로 북한체제의 안정이 의심되고 있고, 남북 화해협력의 진전으로 평화통일의 징조도 나타나는 등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통일 한국은 연변 조선족과 연결되면서 거대한국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중국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해야 하겠다는 숙원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이를 차단하려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영토였던 동북 3성 지역의 역사적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조선족은 체제 순응적으로 조용히 살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중국의 소수민족 통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체제가 갑자기 붕괴되었을 경우에도 한국이나 미국을 배제하고 북한체제에 중국 정권을 세우는 데도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규정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역사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조선과 청나라는 1712년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 있는데, 그 분수령에 새겨 동쪽은 토문강을 국경선으로 삼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 토문(土門)과 두만(豆滿, 중국에선 圖們)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후에 중국은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역지를 부렸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이런 중국의 역지 주장을 받아들여 남만철도부설권과 푸순탄광채굴권 등 이권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 간도땅을 넘기는 간도협약을 체결한 것이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두만강 이북 간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지도가 발견됨으로써 두만강 북서쪽에 정계비에서 말한 토문강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실을 협약

체결 당시 일본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토문강 동쪽,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 지역인 간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 땅이다. 고구려 발해 이후 이 황무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개척하고 거기서 실제로 삶을 이어온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다. 고려 때 윤관 장군이 설치한 동북 9성 가운데 공헌진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전해진다. 19세기 한국인들이 대거 이주했고 불과 1902년만 해도 대한제국은 조정에서 간도관리사를 파견해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가까이 일제 시대에도 운동주의 '별을 헤는 밤'이나 가곡 '선구자'의 무대이자, 한국인들에겐 중요한 삶의 공간이었다.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인 을사조약으로 빼앗은 외교권으로 체결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은 1952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1941년 이전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합의한 바도 있다.

영토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이고, 국제사회의 지지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이다. 중국은 이를 인식해 이미 세계 각국의 정부와 단체에 고구려사가 중국사임을 홍보해 놓았다. 동북지역 주민들에게 고구려사가 중국사임을 주입시키기 위해 공산당 간부용 교재를 만들어 배포를 완료하고 교육에 들어간 상태이다. 중국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으니 전략적 차원의 고구려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준비된 것이 별로 없다. 중국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도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하지 않았던가. ☞